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 인식에 관한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김 동 형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권 순 용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김 동 형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 인식에 관한 연구

김 동 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올림픽 레거시 중에서 본원적 의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레거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그 실효성과 투자가치가 끊임없이 의심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비교적 지속적인 평화 레거시로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평화 레거시 인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는 어떻게 인식됐으며, 그러한 평화레거시 인식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사례연구로서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 고찰은 주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기관의 공식 문서, 보고서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의 내용 및 범위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기획 및 운영자로서 2018평창기념재단의 사업 관련 운영부서와 KOICA(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임직원, '평창평화포럼'의 참여자를 면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체적으로, 자료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주제를 찾아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는 개념적, 이론적 일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다양한 평화 패러다임 중,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가 혼재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비교적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평화 레거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평화 레거시 의미가 역설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평창올림픽, 평화구축, 평화 레거시, 전쟁의 문화, 평화의 문화
학번: 2020-21335

목 차

제 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필요성 ····· 3
3. 연구 목적 ····· 7
4. 연구 문제 ····· 7

제 2장 이론적 배경 ····· 8
1. 올림픽 레거시 ····· 8
1) 올림픽 레거시에 관한 문제의식 ····· 8
2) 올림픽 레거시의 개념화 ····· 10
2. 평화 패러다임 ····· 17
1) 평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패러다임 ····· 17
2) ‘평화의 문화’ 와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 ····· 18
3. 평화 레거시 ····· 20
1) 평화 레거시의 연구현황 ····· 20
2) 평화 레거시의 측정 ····· 25
4.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평화 레거시 ····· 27

제 3장 연구방법 ····· 30
1. 연구방법의 선정 ····· 30
1) 연구의 패러다임 ····· 30
2) 연구의 유형 ····· 31
2. 연구 참여자 ····· 33
3. 자료수집 ····· 35
1) 문헌고찰 ····· 35
2) 심층면담 ····· 36
4. 자료분석 ····· 37
5. 윤리적 고려 ····· 39

제 4장 결과 ····· 41
1.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인식 ····· 41
1)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 ····· 42
가. 정치적 이해관계와의 결합 ····· 42
나. ‘전쟁의 문화’레거시만의 가시화 ····· 43
2)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 ····· 45
가. ‘평창평화정신’ 레거시 형성 ····· 45
나.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의 전파 ····· 47
다. ‘평화의 문화’ 확산 여부 ····· 50
2.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함의 ····· 52
1) 평화 레거시의 실질적 구현 ····· 52
가. 결과를 보여준 평화 레거시 ····· 52
나. 평화 레거시에 대한 피드백 ····· 55
2) 다양한 평화 레거시 함의의 역설적 혼재 ····· 57
가. 정치적 개입의 염려와 수용 ····· 58
나. 정치적 개입의 양가적 의미 ····· 60

제 5장 논의 ····· 68
1.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인식 ····· 68
2.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함의 ····· 72
1) 평화 레거시로서 함의 ····· 73
2) 평화구축 수단으로서의 함의 ····· 75

제 6장 결론 및 제언 ····· 78
1. 결론 ····· 78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79

표 목차

표 1. Thompson et al.(2019)의 올림픽 레거시의 연구 지형 재구조 ·····15
표 2. ‘평창 평화 포럼’ 계획, 운영자 연구 참여자 목록 ·····34
표 3.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연구 참여자 목록 ·····34

그림 목차

그림 1. IOC의 올림픽 레거시 개념 ·····12
그림 2. 레거시 큐브 ·····14
그림 3. 연구 패러다임과 방법 ·····32
그림 4. 2019~2022 평창평화 레거시 온라인 키워드 빈출 네트워크 분석 ·····48

제 1장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는 모두 3년 전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반도기 아래에서 같이 입장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 순간은 역사상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도모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모습 중 하나였다.”

위 문장은 토마스 바흐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위원장이 2021년 평창평화포럼에서 한 연설을 인용한 것이다[1].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평화 레거시의 내용과 의미는 일반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평창 거주민들조차 평화 레거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평창군은 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창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평화 관련 인사들과 학자들을 초청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평창군, 2021). 나아가 평창평화포럼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인이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모색하는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박성준, 2021). 또한, 올림픽 당시 개・폐회식장을 개축하여 평창평화기념관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올림픽 유산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올림픽프라자 일대에 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공간인 평화센터와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운영을 맡은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는

1) 2021년 평창평화포럼은 2018년 평화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었다.

2021년 1월 출범하였다. 평창군은 이외에도 국제올림픽 휴전센터에서 운영하던 평화 유스 캠프를 평창에서 새롭게 개최하고, 평화주간 행사 등을 통해 평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평창군 진부면에 3,6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평창평화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역시 계획되었다(김광희, 2021).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끝난 시점인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위에서 나열한 사업이 모두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정권 교체 이후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관련 사업들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평화 레거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던 평창올림픽 직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2019년까지 평화 레거시에 대하여 냉소적인 시선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는 정부가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강원도가 '평화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으로 74억 원을 요청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아가 강원도는 '올림픽 1주년 기념 Again 2018 평창=평화' 사업의 총사업비 111억 원 가운데 74억 5,0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올림픽 평화 레거시에 대한 인식과 의미는 일정한 방식으로 지속한다기보다 상황적 맥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 레거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평화 레거시와 같은 무형의 레거시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이기보다 수사적인 형태를 가진다(Tomlinson, 2014). 이는 무형의 레거시 특징으로 인해 레거시가 어떠한 형태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사례를 통해 평화 레거시라는 무형의 레거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그동안 무형의 레거시(평화 레거시)에 대해 수사적이라고 판단하거나 다른 유형의 레거시에 비해 그 영향력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무용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평화 레거시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매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이벤트이다. 올림픽의 개최를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자(정책 입안자, 정치가, 행정가, 국민, 지역주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올림픽 개최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이득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올림픽 개최가 가져오는 이득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Preuss, 2015). 자신이 받는 이득을 판단함으로써 그에 대한 투자가치와 기회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올림픽 레거시와 관련하여 더 실질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형의 레거시에 내재한 수사적인 측면과 한계들이 가시화되었다.

올림픽 레거시의 유형과 효과를 개념적으로 체계화한 Preuss(2007)는 올림픽 레거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올림픽 레거시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00년 초부터 올림픽 개최가 레거시를 발생시킨다는 생각에 대한 수사적인 결과와 실재하는 결과들이 연구가 진행되었다(Leopkey & Parent, 2017; Preuss, 2007). 특히, 최근 몇몇 도시들이 올림픽 개최

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올림픽에서 로마를 기점으로, 2022년 올림픽에는 스톡홀름, 그라우뷘덴, 크라쿠프, 뮌헨 그리고 2024년 빈까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는 도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Preuss, 2015). 개최도시들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최근 도쿄올림픽의 개최 과정에서 올림픽 개최로 인해 개최국 및 개최도시가 받을 수 있는 막대한 불이익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최근 IOC는 개최도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올림픽 레거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 혹은 국가에서 올림픽 개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불명확하게 하고, 추후 다른 국가들의 올림픽 개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Gratton & Preuss, 2015).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IOC가 가진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일조하고 있다.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집단의 관점으로 해석되어 올림픽 개최도시나 투자자들의 입장과 일치하지 못하는 수사적이고 맹신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Homma & Masumoto, 2013; Tomlinson, 2014). 실제로 IOC가 가진 이해관계가 부정적 올림픽 레거시의 형성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긍정적 올림픽 레거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Spaaij, 2012). 이러한 논란 속에서 본 연구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라는 사례를 통해 무형의 긍정적 레거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평화 레거시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Kay(2012)는 올림픽 및 스포츠의 평화 레거시를 재정 제공자와 수령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외부의 요구와 무관한 내부만의 레거시 학습으로 지식 생산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분명한 증거'의 제시가 레거시의 요구 또는 지역적인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IOC, 국가 올림픽 위원회 또는 UN(United Nations) 등 외부 기관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ay(2012)의 연구는 올림픽 내에서 올림픽 운동선수 및 기타 행위자가 수행, 조정 또는 재정을 지원하는 평화구축 및 개발 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올림픽 지원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영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올림픽이 문화 간 참여를 위한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올림픽 움직임의 기여가 눈에 띄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Kay(2012)는 스포츠를 직접적인 평화구축의 도구로 사용하는 야심찬 아이디어가 '거시적 수준에서 대부분 실패와 저항에 부딪힌다.'고 설명하며 스포츠가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Spaaij(2012)는 올림픽과 평화구축의 연관성이 세계,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실행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올림픽이 평화구축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 철학적이며 역사적인 토대 마련이고, 두 번째로는 세계 정치 및 국제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및 평화 레거시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Spaaij(2012)는 정책 입안자, 평화유지군, 운동선수, 개발 활동가 및 기타 행위자들이 평화를 향해 가시적인 차원에서 '통합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올림픽에 개입하기 때문에 올림픽과 평화구축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Spaaij(2012)는 이에 더해서 올림픽 휴전이 전쟁과 폭력적인 갈등의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광범위한 평화구축 도구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Briggs et al.(2004)이 명시한 것처럼, 올림픽 게임은 점진적인 변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

며 평화 문화 증진을 위한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은 보스니아의 인도적 구호에 기여한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올림픽 휴전에서 영감을 받은 휴전 협정으로 이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어 약 10,000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으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개최 이전 평화올림픽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했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정치적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Lee, 2017).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그와 관련한 정치적인 맥락에서 북한을 통해 평화올림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무력 도발, 핵무기 생산 중단 등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Montifield & Sharpe, 2020).

이러한 이유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레거시는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아직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평화 레거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올림픽 전후에 나타난 평화 레거시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레거시가 어떻게 인식되어왔는지 분석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위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둘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레거시 인식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제 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에 대한 인식과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올림픽 레거시는 무엇인지, 두 번째는 평화가 어떠한 패러다임을 통해 인식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올림픽 레거시에서 평화 레거시는 무엇인지, 네 번째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됐는지다. 해당 작업을 통해서 현재 평화 레거시의 연구 지형과 평화 레거시가 이해되는 방식, 더 나아가 평화 레거시를 해석하는 관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올림픽 레거시

1) 올림픽 레거시에 관한 문제의식

올림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림픽이 개최되면, 개최되는 올림픽을 중심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고 또다시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상과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올림픽 레거시이다(Tomlinson, 2014). 이러한 레거시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레거시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또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공항을 도시 밖으로 이전시켜 전반적인 차량 흐름을 개선한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꾸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를 바꿀 수도 있으나, 갑작스럽게 도시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소수 이해관계자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로, 올림픽이 일어난 이후에는 해당 도시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림픽 개최는 과거처럼 마냥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학술적 영역에서 올림픽 레거시를 각자의 방식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올림픽 레거시의 주요 주체인 IOC의 개념화는 각 국가의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가지게 될 전략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학술적 영역에서의 개념화는 IOC의 개념화가 더욱 명확해지고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올림픽 개최 전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올림픽 레거시 연구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분야와 담론들이 남아있다.

올림픽을 개최할 때 새로운 환경은 항상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시설, 경제적 투자, 정치적 움직임, 사회적 변화 등 많은 요소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 조성된 환경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 올림픽의 문제점으로 자주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먼저, 문제 해결책의 우선으로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올림픽 레거시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ashman(2005)은 올림픽 레거시의 자명한(self-evident)특성으로 인해 올림픽 레거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올림픽의 지속적인 개최와 성공을 위해 올림픽 레거시를 개념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올림픽과 관련한 다채로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Tomlinson, 2014).

2) 올림픽 레거시의 개념화

올림픽 레거시라는 용어가 IOC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 캘거리 동계 올림픽 때였다. 당시 소련과 소련의 수많은 위성 국가들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올림픽 개최 여부를 둔 논쟁이 오가던 상황에서 IOC는 경제적인 상황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수, 관계자, 관객들에게 최고의 참여 경험과 올림픽 시설의 유산이 완벽히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림픽 레거시에 관해서 언급하게 된다. 올림픽 현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용어로써 사용된 올림픽 레거시는 올림픽 움직임이 추구하는 평화와 국가 간의 이해를 칭송하는 과장된 도구로 사용되었다(Tomlinson, 2014).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울의 눈부신 성장으로 인해 올림픽 레거시는 더욱 조명받았으며 1999년에는 올림픽 움직임을 위한 Agenda 21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레거시’가 포함되었다. 2002년에는 올림픽 레거시가 공식적으로 IOC의 소개 문서에 포함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개최도시와 나라에게 가능한 올림픽 레거시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이었다(Weed, 2013). IOC는 올림픽 레거시를 광범위하게는 올림픽이 창조하는 개최도시와 그 시민들, 그리고 올림픽 움직임에 올림픽이 개최하기 전, 올림픽 중, 그리고 폐막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적 이득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IOC, 2021).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003년 올림픽 헌장에 IOC에서는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또는 스포츠 집단에 올림픽 개최 이후 도움이 되는 스포츠 시설과 공공 발전에 집중한다(IOC, 2021)고 명시하고 있다. IOC의 이러한 시각은 그들의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다.

IOC의 올림픽 레거시 개념화는 올림피즘(Olympism)에서부터 시작된다. 1894년 신 솔본느에서 피에르 꾸베르텡(Pierre de Coubertin)이 한

연설에서 시작된 올림피즘은 스포츠가 인간애(humanity)에 기여한다는 철학으로, 스포츠를 문화와 교육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IOC는 올림피즘이 세 가지 중요한 올림픽 가치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다.

- 경기장이나 삶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탁월성
- 스포츠에서의 결속과 공동체 정신, 즐거움과 긍정을 바탕으로 하는 우정
- 자기 자신과 남들, 더 나아가서 규칙과 환경에 대한 존중

이러한 올림피즘은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에 의해서 전파된다. 올림픽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결연(concert)되었으며,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IOC, 2017).'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올림픽 운동의 주체는 IOC와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을 중심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 스포츠 선수들, 단체들과 기관들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IOC가 올림픽 레거시를 이론적으로 바라보기보단, 올림픽 운동을 도와주는 도구로써 정의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 레거시를 올림픽 운동 비전의 결과물로,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가속화되거나 발생하는 사람들, 도시, 지역 그리고 올림픽 운동에 장기적인 예측 가능하고 불가능한 모든 이득(IOC, 2017)'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올림픽 운동을 특정 장소와 시간에 걸쳐 실행하는 것이 올림픽 레거시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특정 장소와 시간은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맥락에서 생성되게 되는데, IOC는 이를 도시/지역 비전으로만 바라본다. 이렇게 정리된 올림픽 레거시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1. IOC의 올림픽 레거시 개념(IOC, 2017, p. 13).

학술적으로, 올림픽 레거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 학술검색 기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개에서 50개의 관련 논문이 개재되었으며(Preuss, 2007), 2000년부터 2016년까지 305개의 관련 논문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Thomson et al, 2019). 당연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올림픽 레거시의 명확한 개념화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Cashman, 2005; Gratton, 2008; Hiller, 2006; Homma & Masumoto, 2013; Preuss, 2007, 2014, 2015, 2019; Tomlinson, 2014). 이들 중 초기 올림픽 레거시를 정의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는 Cashman과 Preuss이다.

Cashman(2005)는 우선 ‘레거시’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

다고 말한다. 이는, 위에서 IOC가 개념화한 바와 같이, 조직적 단체에서 사용될 시에 완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연히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의 이익이 공동체에 흘러 들어가리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여지를 바로잡고자 Cashman(2005)은 레거시를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한다. 이는 ① 스포츠의 영역 ② 경제적 영역 ③ 사회 기반 시설의 영역 ④ 정보와 교육의 영역 ⑤ 공공 문화와 공적 생활의 영역 ⑥ 상징, 기억과 역사의 영역이다.

Preuss(2007)는 Cashman(2005)의 정리에 대해 다소 양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레거시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Preuss가 정리한 레거시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요소 ②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소 ③ 유형과 무형의 요소 ④ 변화된 구조의 다양한 시간과 기한적 요소 ⑤ 변화된 구조의 다양한 공간적 요소이다. Preuss(2007)는 이것에 맞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올림픽 레거시의 정의를 제시하는데, 이는 “레거시는 그것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과 무관하게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 또는 스포츠 이벤트에 의해서 스포츠 이벤트 그 자체보다 오래 진행되는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유형이거나 무형인 구조(structure)” 라고 설명한다. Preuss(2007)는 위와 같은 정의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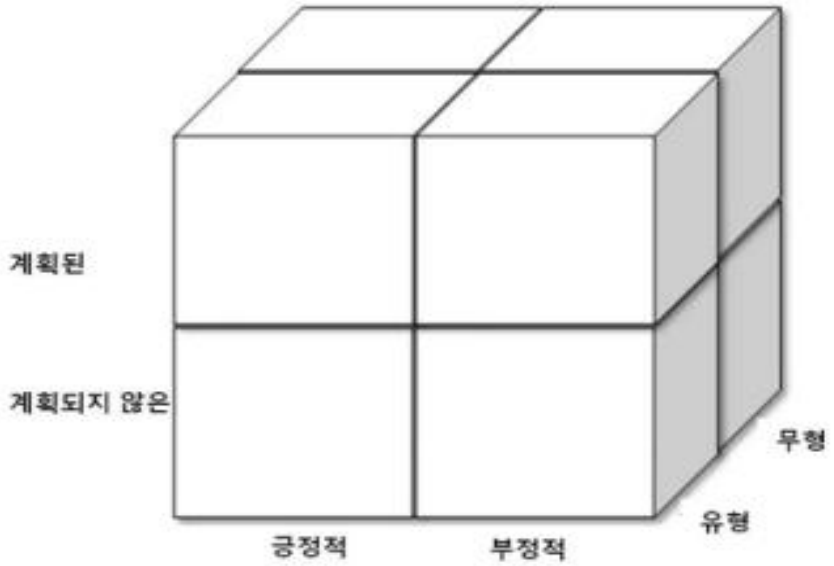

그림 2. 레거시 큐브(Preuss, 2007; 인상우, 2011에서 재인용, p. 126).

Preuss(2007)의 정의는 기존에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성된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개념이나, 연구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림 2>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올림픽 레거시는 크게 8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의 올림픽 개최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계획되고, 긍정적이며 유형의 형태인 것만 강조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Preuss(2007)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올림픽 레거시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피치 못하게 계속 나타날 것처럼 보인다. 이는, IOC와 같은 조직은 부정적인 요소는 배제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Cashman, 2006; Preuss, 2007). Mangan(2010)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세 가지에서 바라본다. 이는 ① 긍정적인 레거시가 성공적인 올

림픽의 증거가 되며 ② 공공 자원 이용을 정당화하고 ③ 미래에 다른 이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올림픽 레거시가 적용되는 분야를 보다 실질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는 경제, 시설, 사회, 스포츠, 문화, 도시, 공동체, 이미지와 상업화, 정보와 지식, 정치, 심리 또는 감정, 환경, 연결망, 재정, 교육과 기술, 상징, 역사, 투어리즘, 건강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뉘게 된다(Preuss, 2015).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세부적인 요소에서 레거시가 겹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 레거시는 이미지, 시설과 같은 요소와 겹치게 되고, 스포츠 레거시의 경우 이미지, 시설, 지식 교육과 같은 요소들과 겹치게 된다. 이러한 레거시들의 겹침은 같은 레거시에 대한 다른 시각들을 제시하게 되며 그에 따라 레거시가 무엇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Thompson et al(2019)은 학술적인 영역에서 올림픽 레거시가 세분된 방식을 총 410개의 연구 문헌을 조사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이 정리한 2019년까지 학술 문헌에서 나타난 올림픽 레거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Thompson et al.(2019)의 올림픽 레거시의 연구 지형 재구조

레거시 종류	논문 수
정치 및 문화	99
스포츠 집단 참여	65
경제	60
특정 분야가 정해지지 않음	41
건축	39
환경	28
스포츠-신체	25
건강	16
엘리트 스포츠	9

해당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대략 30%가량의 문헌들이 예측 불가능한 올림픽 레거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20%가량의 문헌에서 스포츠 집단 참여(Sports mass participation)와 같은 경제적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omson et al.(2019)은 이러한 결과에 관하여 해당 연구 패턴은 그동안 단기적인 경제적 성장에 집중했었던 올림픽 레거시가 더 넓은 범위에서 개최 공동체와 올림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변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레거시의 결과물들에 대한 이러한 넘치는 연구들은 정책, 계획 또는 결과물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보다 과분하게 많은 양상을 보인다.

학술적인 분야에서 올림픽 레거시의 수사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으로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다면적이고 명확한 평가이다(Carlini er al., 2020; Thomson et al., 2020; Tomlinson, 2017). Griffiths & Armour(2013)는 올림픽 유산에 대한 기대는 보다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ickson et al.(2011)의 논문에서는 모든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올림픽 개최를 위한 근거로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Tomlinson(2014)은 올림픽 유산이 지닌 희망적인 포부에 반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림픽 유산에 대한 수사적인 담론이 만연해 있다고 하였고, Li & McCabe(2013)는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론과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명시하며,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구분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정리하자면, 다면적이고 명확한 평가를 통하여 올림픽 레거시에서 긍정적인 면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올림픽 개최지역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2. 평화 패러다임

1) 평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패러다임

평화와 관련된 이슈와 그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근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전쟁과 테러로 인한 파괴와 고통뿐만 아니라 빈곤, 불평등, 인권침해, 인종 간, 문화 간 갈등, 환경 파괴의 파괴적인 영향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당면해 왔다 (Galtung & Fischer, 2013; George, 2020; Kyrou, 2007; Yesufu, 2006).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립으로 인식되고 구성되었으며 단순한 전쟁의 부재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평화의 범위와 정의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세계가 평화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Yesufu, 2006).

이에 따라, 학술적 영역에서도 평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평화라는 주제의 특성상 평화의 패러다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Bryman(2007)이 설명한 바와 같이 평화에 접근 및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평화구축의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Bryman(2007)은 이를 철학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접근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질적 분석이나 양적 분석으로 그리고 이 두 방식이 혼합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평화의 패러다임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왔다. 우선, 가장 넓은 범위에서 평화가 구축되고 유지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가 있다 (Galtung, 2004). Galtung & Fischer(2013)에 따르면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가 구축되고 유지되는 방식은 최대한 분쟁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 역시 ‘전쟁의 문화’와 같이 분쟁

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평화의 문화’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평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는 ‘전쟁의 문화’가 만들고자 하는 갈등이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 조성의 한계를 직시하며, 소통을 통한 범세계적인 평화구축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다(Boulding, 2000).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 이외에도 평화를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평화의 문화’와 접근 방식이 유사하지만, 문화의 전파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빌어 풀뿌리 단계의 성장에 집중하는 ‘평화 교육 패러다임’(Synott, 2005), 경제적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에 집중하며 보다 실질적인 평화구축을 요구하는 ‘경제적 평화 패러다임’(Sharp, 2011), 최근 들어 발생하기 시작한 환경문제의 분쟁 조정을 위해 나타난 ‘환경 평화 패러다임’(Kyrou, 2007) 등 평화학의 영역에서 다양한 패러다임을 통해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화의 패러다임 중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에 초점을 두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인식을 이해하였다. 이는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의 발생 과정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형성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 역시 분쟁을 어떻게든 막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과 평화의 정신을 전파하려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Galtung(1965, 1985, 1996, 2004)은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서 인류가 그동안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

용하고자 하였는지 설명한다. Galtung(1985, 2004)에 따르면, 인류가 평화가 정착하는 형식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평화가 전쟁(또는 분쟁)이 없는 상태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였으며, 그 방식이나 수단보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전쟁의 문화'를 따랐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그동안 목격하지 못했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문화'는 군국주의, 국가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글로벌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쟁의 문화'는 '전쟁'이라는 요소에 집중하며 이를 방지하고 종결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전쟁을 막기 위해 베르사유 조약과 같은 조약들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이 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은 전쟁(또는 분쟁)이라는 요소에 집중하기보다는 평화 그 자체에 집중하여 '평화'라는 정신을 전파함으로써 개인이 능동적으로 분쟁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Boulding, 2000). 다시 말해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은 '평화'라는 요소에 집중하여 이를 전파하고 안착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Galtung & Fischer, 2013).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은 이러한 배경에서 '전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Boulding(2000)은 '평화의 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전쟁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평화가 진정으로 어떠한 것과 수반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에 기반한 평화구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작성한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의 등장 배경에서만 미루어 보았을 때, '평화의 문화'가 '전쟁의 문화'보다 발전된 패러다임의 형태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도 많은 연구, 특히 전쟁에서 발생하는 평화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전쟁의 문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전쟁이 끝나는 과정이 곧 평화의 과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평화구축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정을 동반하기에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Galtung & Fischer, 2013; Yesufu, 2006). 이러한 바탕에서 Galtung(2004)은 결국 인류는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평화는 단순히 문화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와 경제와 같은 요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 평화 레거시

1) 평화 레거시의 연구현황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피가 경제적인 부담에 치중된 상황에서 경제적 레거시가 아닌 레거시들도 조금씩 조명받고 있다. 주로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치우쳐져 있던 연구들은 무형의 레거시 효과를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Bob & Swart, 2010). 또한, 설령 무형의 레거시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무형의 레거시가 과연 지속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Chalip, 2006). 이는 무형의 레거시가 그 효과를 확실히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Thomson et al., 2020), 측정할 수 없는 레거시로서 평가받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VanWynsberghe &

Pentifallo, 2014). 하지만, 이러한 무형의 레거시의 잠재력은 정책적, 현실적 그리고 학술적 영역에서 최근 집중 받고 있다(Thomson et al., 2019). 학술적 영역에서는 무형의 레거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어떻게 무형의 레거시가 설계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Orr & Jarvis, 2018; Smith, 2014).

이렇듯 그동안 집중을 받지 못하였던 무형의 레거시에서도 평화 레거시는 레거시 담론에의 중심에서 더욱 멀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올림픽 레거시 연구가 특정 지역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Thomson et al., 2020)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평화 레거시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해외 논문을 포함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수많은 올림픽 레거시 연구 중 평화 레거시에 관련된 논문은 매우 부족하다. 사실, 올림픽을 통한 평화가 다소 역설적인 면이 있다(Reid, 2006). 올림픽 헌장에서 분명히 올림픽은 선수들 간의 경쟁이며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올림픽은 분명히 국가 간의 경쟁이고 국가주의와 분리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서, Hoberman(2011)은 IOC의 가장 수사적인 업적은 올림픽 움직임이 평화 움직임이라는 전설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Reid(2006)는 올림픽이 고대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중에서 평화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평화에 관한 연구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올림픽 레거시와 비슷하게 스포츠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자 하는 Sports for Development and Peace(SDP)의 예시를 들자면, Woodhouse(2019)는 평화와 분쟁과 관련된 연구가 그 대상에 의해 개인내(intra-personal), 개인간(inter-personal), 그룹간(inter-group), 국가간(international), 지역간(regional), 글로벌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의 연구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누어진다고 설명하

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Galtung(1996)이 구분한 4가지 영역을 소개한다. 이는 ①인간 개인을 다루는 개인적 영역 ②문화, 정치, 경제 등을 다루는 사회적 영역 ③국제적 관계를 다루는 세계적 영역 그리고 ④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다루는 환경적 영역이다. Woodhouse(2019)는 SDP의 영역에서 대다수 프로젝트가 Galtung(2004)의 모델에서의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속해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많은 SDP 프로젝트들이 대화, 자부심 증진, 협동, 윤리와 도덕, 동기부여와 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며 사회적 함유(social inclusion)와 사회적 통합(socila cohesion)의 근간이 되는 개인적 생활 기술(personal life skill)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Woodhouse(2019)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SDP 프로그램(특히, 축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FutbolNet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포츠가 개인의 생활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평화와 스포츠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올림픽이 아닌 패럴림픽의 유산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Brittain(2012)는 굳이 전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영역에서 평화 레거시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는 장애인 올림픽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을 초래한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그들이 더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rittain(2012)은 이러한 패럴림픽 유산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유산이며 장애인을 더 크고 공정하게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올림픽과 평화에 대하여 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도 존재한다. Parry(2007)은 올림피즘과 평화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을 두고 논의한다. 스포츠의 내적 자질과 가치의 측면에서, Parry(2007)는 스포츠

의 본질이 대인 이해와 존중의 과제에 적합하며, 규칙이 지배하는 경쟁에서 협력적 노력의 본질이 평화로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스포츠의 평화 조성 능력이 올림픽 운동의 평화유지 잠재력을 알려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artinkova(2012)는 올림피즘의 평화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쿠베르탱의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올림픽과 평화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녀는 평등, 아마추어리즘,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 규율, 국제주의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일반적인 스포츠 관행, 특히 올림픽 게임이 평화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쿠베르탱의 철학에 대해 논의하는데, 과도한 스포츠 경쟁의 시대에 쿠베르탱의 생각이 올림픽 가치 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림픽과 평화와의 관계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루는 학자들도 있다. Burleson(2012)은 고대 올림픽 휴전의 관점에서 올림픽 운동의 평화구축 능력과 현대 외교 관계에서의 역할을 검토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과 OLOS 재단이라는 두 가지 사례에서 전자가 '오래된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에 올림픽 휴전의 적용 사례를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올림픽 휴전이 잠재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Tassell & Terry(2012)는 남북한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스포츠, 특히 올림픽이 전쟁 국가간의 점점 더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Spaaij(2012)는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말뿐인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993년부터 올림픽 휴전은 UN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2년마다 하계 및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UN총회는 올림픽 휴전의 이상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회원국들에게 휴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Spaaij(2012)는 올림픽 운동과 유엔 간의 협력이 증가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올림픽 휴전은 과거 고대시대의 올림픽 휴전보다 더 큰 포부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paaij(2012)는 또한 올림픽 성화봉송이 평화 레거시에 이바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성화봉송은 '인간, 세대, 국가 간의 평화로운 협력의 표현'을 제공하는 문화 간 이해 증진의 중요한 의례로 특징된다. 그러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 인도 및 기타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 봉송을 둘러싼 티베트인들의 시위는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화봉송을 둘러싼 시위가 비단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반올림픽'의 경우처럼 IOC자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반올림픽' 운동은 평화로운 공존을 증진하려는 IOC의 목표를 촉진하기보다는 교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운동은 국제적 대화를 촉진하고 위의 사례와 같은 모습으로 대안적 형태의 지식과 행동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러한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더 평화롭고 윤리적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은 옹호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평화와 평화의 증진 또는 침식에 관한 생각과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한다. Black & Benzanson(2004)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준비 기간 중 발생한 강압적인 탄압과 그로 인한 국가적 굴욕의 위협이 국가의 사회적 전환의 속도와 평화에 승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으로 촉진된 전례 없는 규모의 광범위한 탄압과 유혈 사태가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을 일으켰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Parry(2007)는 올림픽 휴전이 정치적으로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없을지 모르나, 거기에 담겨있는 교육적 철학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올림픽 선수들과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기타 행위자들은 다양한 풀뿌리 평화구축 활동에 참여했다. 한

가지 예로, 국제올림픽 아카데미의 올림픽 참가자들이 설립한 올림피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올림피즘 프로젝트는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인간 개발,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증진을 위해 개인과 그룹이 책임을 지도록 고무하고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평화, 인도주의 및 평화로운 국제주의라는 올림픽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풀뿌리 수준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문헌들은 올림픽과 평화구축이 가지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과 공존, 문화간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주어지는 다양한 과제와 장애물들을 보여준다. 또한, 궁극적으로 올림픽 움직임이 올림픽 헌장에서 명시되는 바와 같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사회' 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적으로, 해당 연구들은 다양한 올림픽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평화구축의 형태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분명히 존재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레거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평화 레거시의 측정

무형의 레거시의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접근 방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비판적 사건 연구(Critical Event Study)는 무형의 레거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 (Lamond & Platt, 2016; Lamond et al., 2020). 비판적 사건 연구를 제시한 Lamond & Platt(2016)는 올림픽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 현상의 하나로 판단하고 학자들이 올림픽 자원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올림픽 사회적 레거시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운영 및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올림픽 연구에서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서 올림픽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무형의 레거시 중 사회적 레거시의 경우, 올림픽 게임 이팩트 프로그램(OGI)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OGI는 레거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IOC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OGI의 목적은 향후 모든 올림픽에 걸쳐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OGI는 올림픽 대회에 입찰하는 도시와 미래의 주최측이 대회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유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OGI는 평화 레거시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평화 레거시의 경우 평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이며, 평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이고, 그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평화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들이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Hoberman, 2011). 실제로, 현대적 관점에서 올림픽은 그저 한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올림픽 레거시는 이른바 '겹친 영역(overlapping categories)'이 존재하며(Preuss, 2015), 올림픽 레거시의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 및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네트워크라고 표현해야 한다(Spaaij, 2012). 때문에 평화 레거시의 영향과 효과를 판단하면서 사회적 레거시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평화 레거시가 드러난 상황을 기준으로 해당 레거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와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 구체적으로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어떠한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으며,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Cashman(2005)의 연구에서 이러한 레거시 연구 진행의 논리를 살펴볼 수 있다. Cashman(2005)는 올림

픽 레거시는 자명한(self-evident)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레거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화하기보다는 올림픽 레거시의 사례들을 통해 지식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4.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평화 레거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여자 아이스하키 합동팀을 결성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평화올림픽으로서 평창올림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Montifield & Sharpe, 2020).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은 5개 종목에서 선수 22명 및 임원 24명 등 총 46명의 역대 동계올림픽 최대 선수단 파견을 진행하였으며 오케스트라와 응원단을 파견하며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에 공헌하였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받침돌이 되기도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이계영, 김홍태, 2018). 또한, 2017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도니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역대 최다인 157개국의 공동 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되었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제목의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올림픽 개최 7일 전부터 종료 7일 후까지 적대 행위 중단 촉구, 둘째,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셋째, 평창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 분위기 조성 기대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를 지지하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의미를 담아 ‘평화올림픽 휴전벽’ 제막 및 서명 행사가 2018년 2월 5일 평창선수촌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평창선수촌과 강릉선수촌에 ‘평화의 다리 만들기’라는 주제의

올림픽 휴전벽을 세워 참가국 선수와 관계자 등 2~3천 명이 휴전벽에 서명함으로써 올림픽 휴전 정신을 지지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선수들의 서명으로 꾸며진 휴전벽은 평창올림픽 상가와 강릉 올림픽 파크에 각각 전시하였으며, 올림픽을 기념하고 올림픽 휴전 정신을 기리며 평화를 상징하는 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올림픽의 독특한 특성으로 평화가 진행되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Montifield & Sharpe(2020)는 이를 두고 적대적 대립과 대결 구도에서 공존과 번영의 평화 부흥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평창올림픽이 마냥 순탄하게 평화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는 정치적 도구로써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다. 국내 언론들은 보수적 언론과 진보적 언론으로 나뉘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보도를 하였으며(Mun et al., 2021), 정치적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며 정치적인 부분에만 몰두하여 단일팀의 당사자인 선수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일팀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군복, 숙박 및 생활비 지원과 같이 올림픽을 통해 정치적 행보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평화 메시지와 별개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국면 등으로 한반도는 평화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이계영, 김홍태, 2018). Bennet(2018)은 재정적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해 남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고 미국과의 연합을 교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졌으며, Syed(2018)는 북한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전과 북한의 단결을 위한 일시적 시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Lee et al.(2018)은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의 협조적인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을 보여줬고, Miller(2018)는 심지어 한반도의 긴장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들은 스포츠

가 남북 간의 갈등에 명확한 해결방안으로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수식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제3장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선정

1) 연구의 패러다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세상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해석적, 물질적 실천으로 구성되는 연구이다(Denzin & Lincoln, 2011).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인터뷰, 대화, 사진, 녹음자료, 메모 등의 수단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고, 제시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설계는 철학적 가정에서 시작되며(Cresswell, 2012), 이러한 가정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수사론적, 방법론적 가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철학적 가정을 통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된다.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연구자에게서 비롯되어 연구자에게 나타나는 틀로서, 연구자가 가지는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으로 후기 실증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그리고 실용주의로 구분된다(Cresswell, 2007).

본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평화 레거시의 인식을 평화 레거시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사회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을 취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발전시켜 세계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이다(Cresswell, 2012). 이렇게 나타나는 의미는 주로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를 참여자의 견해에 가능한 한 많이 의존하여 해석하였다. 즉, 사회적 구성주의는 현상에 집중하여

각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발견하여 특정한 정답이 있는 현상이 아닌 경험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특정 현상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사회적 또는 맥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개인에 단순히 각인된 것들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는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영향이 항상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평화 레거시가 적용되는 각기 다른 집단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와 영향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

1) 연구의 유형

사회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연구를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 중,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Cresswell(2007)이 제시한 개인, 여러 사람, 집단, 전체 프로그램,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경계를 가진 체계로서 여러 제보자를 통해 그들의 맥락 속에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사례들을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 본다. 사례연구는 이러한 '경계 지어진 체계'에서 관찰, 면담, 영상자료 또는 문헌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하는 형식을 가진다. 사례연구는 사례별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함으로써 사례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특정 체계 내에서 구성되는 효과와 과정을 탐색하기 적합하다.

사례연구 중 다중 사례연구는 '경계 지어진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Cresswell, 2007). 다중 사

례연구는 주로 연구자가 특정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중 사례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수의 연구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한 개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라는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보인 평화 레거시의 형성과 함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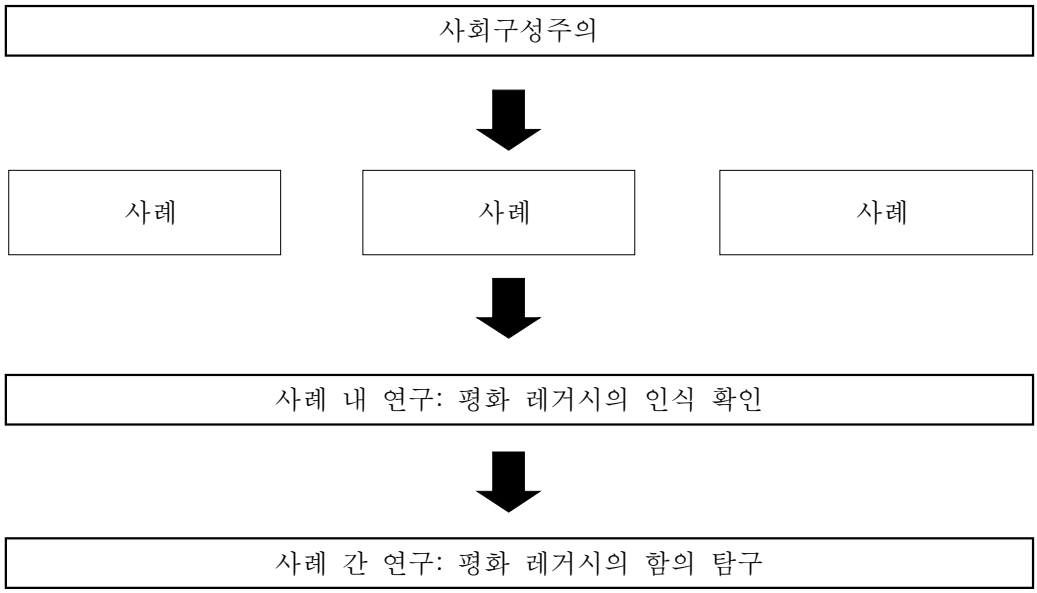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패러다임과 방법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은 특정 현상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대상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다(Cresswell & Plano Clark, 2011). Morse와 Niehaus(2009)는 질적연구에서 표집 방법은 효율성과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질적연구의 표집 방법은 대부분 이해의 깊이를 얻기 위한 것이고 정량적 방법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Patton 2002).

Thomson et al.(2020)은 무형의 레거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직접적인 경험자를 가진 전문가와 실무자를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학문적 연구를 공동 설계하려면 실무자와 그 조직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며, 이는 연구자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보를 고유하고 새로운 증거 기반 학습을 프로그램에 다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구에서 무형의 레거시를 구축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더 나은 레거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올림픽 레거시와 관련된 연구 중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실무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기에 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실무자보다는 레거시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선호되기도 한다(Thomson et al, 2020). 그러나, 평화 레거시의 경우 거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와 관련된 의미, 정체성 및 연결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Misener & Maso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민이 아닌 계

획 및 실행자와 각 사례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기획 및 운영자로서 2018평창기념재단의 사업 및 운영 관련 부서, KOICA(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임직원과 '평창평화포럼'의 참여자를 면담하였다.[2]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평창 평화 포럼' 계획, 운영자 연구 참여자 목록

참여자	구분	소속
#1	기획, 운영자	2018평창기념재단 임직원
#2	기획, 운영자	2018평창기념재단 임직원
#3	기획, 운영자	2018평창기념재단 임직원
#4	기획, 운영자	2018평창기념재단임직원
#5	기획, 운영자	KOICA 임직원
#6	기획, 운영자	KOICA 임직원

표 3.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연구 참여자 목록

참여자	구분	참여자 특성	나이	성별
#1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0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4	남
#2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0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4	남
#3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0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8	남

2) '평창 데이터 센터'의 경우 현재 완공되지 않아 참여자가 없다. 해당 사례는 계획, 운영자를 중심으로 레거시 형성 과정을 탐색하였다.

#4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0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8	남
#5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1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22	여
#6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1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40	남
#7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1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25	여
#8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1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23	여
#9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2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29	여
#10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2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34	남
#11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2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33	남
#12	‘평창 평화 포럼’ 참여자	2022 평창 평화포럼 참여자	31	남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문헌 분석

문헌분석은 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 진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학술 논문, 연구의 결과물, 관련 기관의 공식 문서, 보고서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다. 세부적으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와 관련된 학술 논문, ‘평창평화포럼’ 결과자료집과 언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평창평화포럼’이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로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의 범위 및 내용을 선별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1차 면담을 진행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 질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2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유선 연락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자에게 배경과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2회씩 실시했지만,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였으

며, 녹음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자의 보안 관리 아래 보관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례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고 코딩을 통하여 적절한 해석을 도출해내기 위해 Creswell(2012)이 제시한 사례연구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주제를 찾아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는 개념적, 이론적 일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주제	질문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본인이 참여하였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는 무엇인가요?
	평화 레거시에 참여하거나 활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참여하였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나요?
	본인이 참여하였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본인이 참여하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영향은 어떠한가?	평화 레거시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평화 레거시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면서 개선 또는 변경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평화 레거시에 참여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참여하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본인이 참여하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가요?
	본인이 참여하거나 활동한 평화 레거시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Creswell(2012)는 사례연구의 분석방법이 범주적 분류(categorial aggregation), 직접적 해석(direct interpretation), 유사양상결집(establishing pattern matching),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의 네 가지 단계로 되어있다고 설명한다.

범주적 분류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패턴과 주제를 추출하여 그것들을 범주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기 다른 주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이나 주제의 맥락을 분석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직접적 해석 단계에서는 범주적 분류를 통해 도출된 개념이나 맥락을 다시 주제별로 결집해 포괄적인 의미를 새로 요인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해당 요인들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를 찾아 사례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유사양상결집 단계에서는 각 사례에서 도출된 한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의 일치점이나 공통점, 유사점을 찾아 그것들을 다시 결집한다. 사례의 특정한 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사례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의 도출은 각 사례의 고유한 특징을 더욱 부각할 수 있으며, 단일 사례를 통해서는 드러나기 힘든 내용을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한다(Gerring, 2004).

자연주의적 일반화 단계에서는 본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유사한 사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질적연구에서 말하는 일반화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Denzin & Lincoln, 2011) 연구자가 직접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범주적 분류 및 직접적 해석을 통해 각각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인식과 의미를 구분하였다. 이후, 유사양상결집을 통하여 각 사례에서 나타난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의미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를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통해 올림픽 평화 레거

시가 인식되는 과정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위의 방식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심층 면담 자료를 전사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해당 자료를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로써 사용하였다.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 특히 심층 면접을 동반한 연구 과정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4월에 서울대학교 연구심의를 의뢰하였으며, 2022년 5월 최종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행된 윤리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구참여자는 연구가 왜 진행되며 어떤 과정을 진행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며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 둘째,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참여 과정에서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참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셋째, 연구 결과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기술되지 않았으며,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 중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보안을 철저히 하여 보관되었다.

제 4장 결과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인식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축되었다고 볼수 있다. 구축된 평화 레거시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레거시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다양하게 나타나는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그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Spaaij, 2012).

본 연구에서는 평화학에서 다루는 평화의 패러다임 중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를 통해 평창올림픽 평화레거시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Galtung & Fischer(2013)에 따르면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는 갈등에 집중한다. 이는 평화를 정의하면서, 갈등이 없는 상태로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쟁의 문화'는 군국주의, 국가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글로벌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다르게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평화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다. 즉, 갈등이 없는 완벽한 사회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며(Briggs et al., 2004), 소통을 통한 범세계적인 평화구축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다(Boulding, 2000). 본 장에서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평화의 패러다임에 집중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1)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은 두 가지의 경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와의 결합이며, 둘째, ‘전쟁의 문화’ 레거시의 가시화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특성으로 평화와 관련된 사안은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전쟁의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평화 레거시 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이 아닌, 결과보고서나 기사와 같이 공표된 자료에서 ‘전쟁의 문화’적 접근이 강조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

현재까지 진행된 평화 레거시는 대부분은 재정의 유통이 정부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는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였으며, 대부분의 평화 레거시 프로그램을 주관하였던 2018 평창기념재단의 경우에는 강원도 또는 평창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 *..그전에는 집중하던 것이 남북 교류 사업이고 남북 공동 개최 남북, 남북 이거에 너무 많이 집중해서 해외에서 보는 역사적 순간을 염원하고 기리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죠.*
>
> *(참여자 2)*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상 남북관계와 관련된 접근은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는 크게 분류했을 때 북한에 우호적인 이른바

‘햇볕정책’을 사용하는 방식과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북강경책’으로 나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판도 평화 관련 문제는 각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반되게 나뉘게 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전쟁의 문화’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와 관련된 평화 레거시에서 ‘전쟁의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평화 레거시들이 ‘전쟁의 문화’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는 원인을 짚어주고 있다. 현재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있는 정치적 파급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 단체인 경우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평화 레거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이 드러나는 평화 레거시는 특히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창평화포럼에서 직,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9년 평창평화포럼은 대체로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2019년 평창평화포럼의 대미를 장식했던 2019 평창 평화 선언에서 드러나는데, 한국전쟁의 종식 주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책임 요구 등 ‘전쟁의 문화’적 평화 접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나. 전쟁의 문화 레거시만의 가시화

> *평화에 대해서 배운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평화에서 종전의 중요성이라거나, 왜 종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
> *(참여자 9)*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종전은 2020년 평창평화포럼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서 다루어진 단어이다. 2020년 평창평화포럼은 “실천계획: 종전”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으며 해당 포럼에서 발표한 2020 평창평화포럼 결의안에서는 한반도 전쟁 종식 요구와 이에 따른 강력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구, 4.27남북한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촉구 및 동해선과 유라시아철도 연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같이 갈등을 종식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해당 결의안에서 ‘평화의 문화’적 요소 역시 존재하지만, 이는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2021년에 이루어진 평창평화포럼에서도 ‘전쟁의 문화’적 요소는 계속해서 드러난다. 2021 평창평화포럼에서는 특히 한반도와 관련하여서 집중적으로 ‘전쟁의 문화’적 접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평화 뉴딜’이라는 대주제에서 나타나며, 더 나아가 ‘전쟁의 종식’, ‘핵 무력화’와 같이 갈등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한반도와 관련된 의제에서 지속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반도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한계라는 표현보다는 네 한국에서 사는데 한반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평창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잖아요. 그때까지 그거는 큰 의미가 있죠.*
>
> (참여자 3)

2022년 평창평화포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문화’적 요소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스포츠를 통한 갈등의 해소’ 와 같이 갈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화 레거시에서 ‘전쟁의 문화’적 요소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화 레거시의 재정지원은 모두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는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문화’적 패러다임은 정치적 영향력 또는 억압보다는 올림픽 유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나타난 조절 가능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 레거시 관련 자료와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면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은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요소가 섞이게 되는 점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전쟁의 문화’가 초기에 강하게 드러나지만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연해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은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 또는 억압으로 나타난 형태가 아닌, 상호 이해관계와 평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해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인식된‘평화의 문화’패러다임은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바탕이 되는 ‘평창평화정신’은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평화의 문화’의 형태로 가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평창평화정신’을 기반으로 올림픽 전후로 다양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에 따른 평화 레거시를 확인할 수 있다.

가. ‘평창평화정신’ 레거시 형성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는 ‘전쟁의 문화’적 레거시 뿐만 아니라 ‘평화의 문화’ 레거시도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평화의 문

화’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것이 ‘평창평화정신’의 전파이다.

> *평화 레거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창평화정신의 계승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번 평화포럼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평창평화정신이구요.*
>
> *(참여자 1)*

> *유스피스챌린지에서 전에는 몰랐는데 평창평화정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또 토론하면서 스포츠가 어떻게 평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
> *(참여자 7)*

‘평화의 문화’패러다임의 핵심은 평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에 있다. 즉, 평화구축은 갈등의 종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또는 갈등의 주체가 자신의 선택으로 갈등이 아닌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생성된다는 것이다(Boulding, 2000).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대부분 ‘평창평화정신’의 전파 또는 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평창평화정신의 특성은 포기하지 않고 유치에 성공한 끈기, 평화올림픽 성공을 위한 평창 군민과 강원도민의 적극적 참여, 남북 화해의 계기로 만든 화합, 비 동계 스포츠 개도국의 포용 그리고 유산 사업으로 올림픽 평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신뢰 다섯 가지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평화의 기반한 정신을 전파한다는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평창평화정신’의 전파와 계승은 ‘평화의 문화’패러다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매년 개최되었던 평창평화포럼을 비롯하여 ‘평창피스컵’, ‘평화인재양성 프로젝트’, ‘2021 유스피스챌린지’,‘상상평화캠프’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평창평화정신’의 전파 및 계승을 우선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 ‘평창평화정신’을 주요하게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평창평화정신’의 계승과 전파가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평화 레거시의 운영자 및 관계자는 평창평화정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의 경우 ‘평창평화정신’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의 전파

‘평창평화정신’의 계승 및 전파 이외에도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2022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키워드 언급량 기준 빅데이터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019년 ‘평창’과 ‘평화포럼’, 그리고 ‘올림픽’과 ‘유산계승’간에는 언어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평창평화포럼에서 뉴스 및 미디어 언급량과 온라인 검색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창’과 ‘평화’의 언어적 연결성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평창’과 ‘강원도’, ‘평화포럼’, ‘평화’간의 언어 연결성이 강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평화’는 ‘프로세스’와도 강한 연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평창’과 ‘평화’간의 언어 연결성은 끊어졌으나,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기념재단’과 ‘평화’와 ‘스포츠’간의 언어 연결성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평창기념재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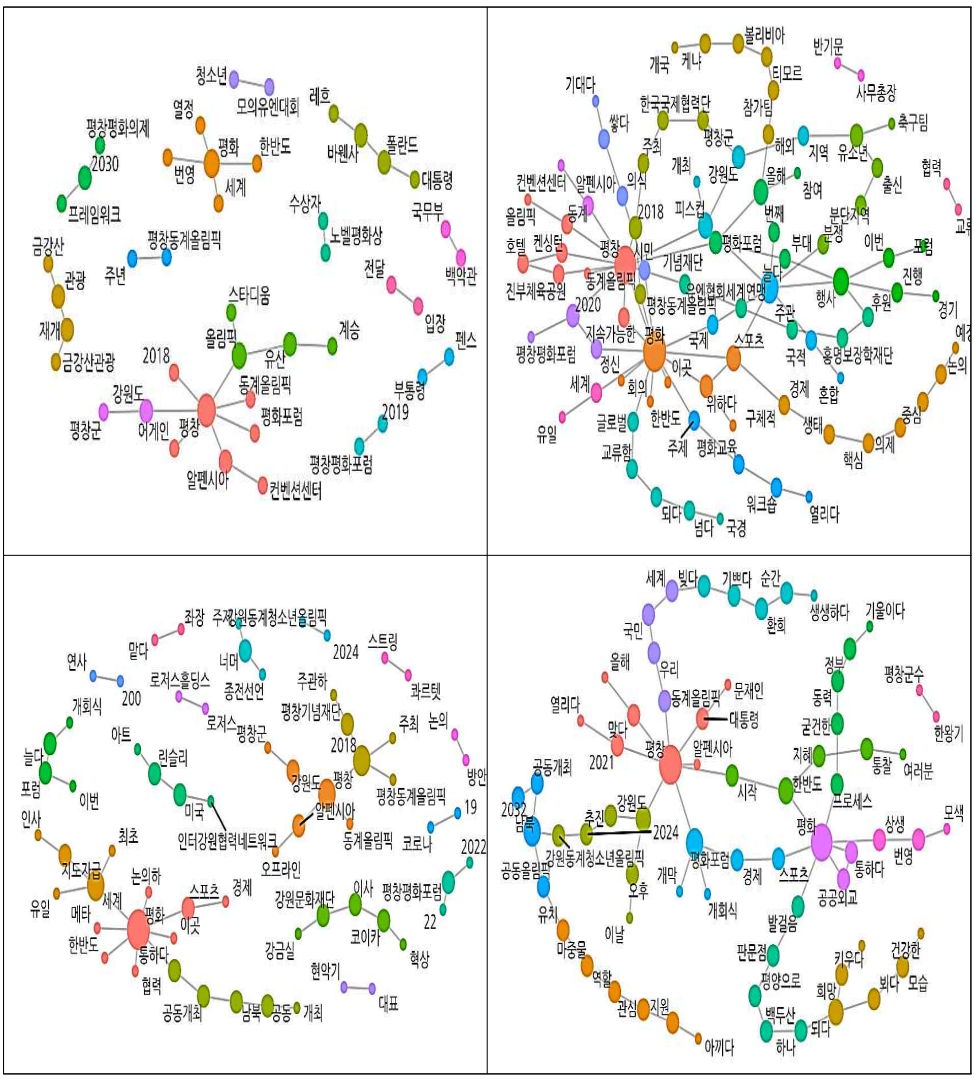

그림 4. 2019~2022 평창평화 레거시 온라인 키워드 빈출 네트워크 분석
(평창기념재단, 2022, pp. 51~54).

사실 가장 '평화의 문화'에 근접한 레거시는 평창올림픽 개최 초기에 많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레거시들은 주로 상징적인 레거시로서 올림픽이 전 세계가 집중하는 행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남북단일팀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남북단일팀에서 선수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처음에는 정부의 주도로 단일팀이 결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외부 불청객이 난입한 느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너무 싫었고 이 친구들이랑 절대로 화합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뀌었어요. 정말 저의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과 뛰고 난 후에 대북관이 바뀌었다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
> *(참여자 9)*

남북단일팀의 경우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림픽이라는 현장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매우 많이 받았었다. 실제로 해당 비판의 대표적인 근거는 남한의 선수들이 단일팀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뒤로하고 휴전 중인 분단국가의 단일팀이 결성되었다는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안이 되었다.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을 통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한미 리더스 평화 전략대화 시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는 고위급 회의 성격으로 평화증진을 위한 전략 구상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해당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 그리고 안

보적 여건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평창평화포럼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됨에 따라 점점 많은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총 11만 시청횟수와 1만 명에 가까운 참여자를 유치하며 평화를 퍼트리는 것에 이바지하였다.

더 나아가 평창평화포럼에서는 2020년부터 '평화의 문화'적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세계인들의 약속과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둔 평창 평화 메시지와 UNSDGs를 제창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0 평창평화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평화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증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을 연계하는 시너지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유누스 스포츠 허브(Yunus Sports Hub)와 MOU체결이나 SNS를 통한 다양한 챌린지와 같은 방식으로 평화 정신 전파를 위한 실질적 접근 환경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화의 문화'적 패러다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전쟁의 문화'에 기반한 의제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주고받은 담론은 '평화의 문화'에 근접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 '평화의 문화' 확산 여부

사실 '평화의 문화'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정신이 전파가 되었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화의 문화'패러다임에서 핵심적인 평화를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몇몇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화의 문화'패러다임을 인식한 모습을 보여줬다.

평화에 관한 생각이 바뀐 게 있다면 우선으로는 평화는 결코 단숨에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일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수많은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평화를 이룰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참여자 10)

결국, 평화가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한쪽이 희생하는 형태로는 평화가 생겨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협의가 있어야...

(참여자 7)

이와 다른 참여자들의 경우 '전쟁의 문화' 패러다임을 인식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정 참여자의 경우 평화 레거시 참여가 평화를 대하는 자세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특정 참여자들은 평창올림픽 레거시의 구분이 평화 레거시라고 하더라도, 평화보다는 레거시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모습은 '평화의 문화'패러다임이 분명히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통해서 평화구축을 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내에서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은 점점 발전하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평화 레거시 프로그램에서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평화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한된 측면에서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함의

앞서 살펴본 두 개의 패러다임은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가 공존하는 형태의 평화 레거시가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지니고 있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의 실질적 구현, 둘째, 다양한 평화 레거시 함의의 역설적 혼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평화 레거시의 실질적 구현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그동안의 올림픽 평화 레거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를 받았다는 것에 있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레거시 사업의 특정 결과물과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향후 진행될 평화 레거시를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진행 과정에서 운영 및 기획자들과 참여자들이 드러낸 아쉬움은 미래의 평화 레거시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 결과를 보여준 평화레거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많은 올림픽 레거시들 중에서도 평화 레거시를 가장 강조하였다. 특히, 평화라는 어려운 사안을 올림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주창하는 시도는 올림픽이 처음 개최되었던

고대시대부터 지속하여 왔다. 하지만 과연 올림픽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이는 평화 레거시가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비교적 장기간 투자한 사례로서 보여주는 의미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단기적 또는 일회성으로 소비된 많은 평화 레거시에 반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제 한반도 평화와 평창평화 포럼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 공공외교와 스포츠 평화 외교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는 그냥 수단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점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있고, 이제 스포츠와 한반도 평화로 시세보다는 좀 더 평화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일상이라 할까? 문화로 좀 아래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는 두 번째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한반도 프로세스와 연결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좀 약간 무리를 했던 게 없지 않아 있고, 기념재단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평창평화포럼은 사실 스포츠보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평화를 다뤘기 때문에….*
>
> *(참여자 3)*

평화 레거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림픽 레거시에서 다소 괄시받는 경향이 있는 레거시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되는 이득이 눈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수사적인 접근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접근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나타난 정치적 접근은 평화 레거시가 담고 있는 평화의 의미를 쇠퇴시킬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평창올림픽으로만 끝났다면 그 어느 얼굴도 매년 이렇게 모여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속해서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죠. 생각이 나게끔 하는 것 같고 다들 다시 한 번 올림픽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특히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점은 비교적 장기간 평화 레거시를 이어갔다는 것에 있다. 그동안의 평화 레거시는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는 지속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레거시를 이어갔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 레거시 역시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다른 경제적인 레거시처럼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고 의의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1회 차였던 2019년이 이제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면서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2주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가 참여를 했는데 2020년 평화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와서 기조연설을 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인사가 참여를 해서 평화 시민 활동가들도 해외에서 한 60명 정도 저희가 초청을 했었고요. 피스컵이라고 하는 형태의 부대 행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쟁 지역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 학생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 공 하나로 왜 이런 평화를 체험하는 이런 하나 됨을 체험하는 이런 부족 프로그램도 하고 되게 규모가 크게 행사를 했었고 2020년에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 2021년하고 22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참여자 1)

평화 레거시는 올림픽 레거시 중에서 무형 레거시에 속한다. 무형 레거시는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그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는 레거시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형의 형태를 구축하고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과 논의의 장이 형성된다면 충분히 지속적이고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무형 레거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 역시 지닐 수 있다.

나. 평화 레거시에 대한 피드백

평화 레거시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그것이 나타내는 자료가 중요한 가장 큰 원인은 이를 통해서 미래에 개최되는 이벤트에서 참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즉, 지난 사례에서 긍정적이었던 점과 부정적이었던 점을 확인하여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평창에 레거시가 많은데 건물 위주가 아니라 정신적 레거시, 즉, 평화가 핵심인데 그거를 이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국제 참가자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국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논란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해서 참석한 사람들 물론 해 참석한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안 오는 건 당연하겠죠. 이거 취재하는 사람이 초대받았으니까 와서 당연한 거겠지마는 DMZ에 간다든지 이렇게 모여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평창을 계기로 평화와 시지를 연결해보고 스포츠 공공외교 이런 여러 가지를 사람들을 모으고 네트워킹하고 담론을 좀 더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
> *(참여자 6)*

위 내용은 평창올림픽이 무형의 레거시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와 그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 단체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핵을 쏠 것이냐 말 것이냐 남북을 공동 개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
> *(참여자 4)*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역시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단체들로 구성이 되고 그 단체들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단체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이들 사이에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보다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 레거시의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자료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다른 레거시들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에서 역시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인 레거시들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 *평창 평화포럼에서 얘기했던 담론이 국가 정책과 강원도의 정책에 그런 건 아닌 거죠. 일회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평창 기념재단의 한계이기는 한데 국제회의나 이런 담론을 하게 되면은 콘셉트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논의한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참여자 2)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올림픽을 통한 평화 레거시이기 때문에 '스포츠'와 '평화'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러났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장기간 투자를 진행한 대형 산업이기 때문에 레거시가 다소 여기저기 산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2는 '스포츠'와 '평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어도 그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다고, 평화 유산을 스포츠 쪽에 조금 더 맞춰야 하는 오히려 그런 방향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참여자 2)

2) 평화 레거시 의미의 역설적 혼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평화구축의 수단으로서 그 시작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그동안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정치적 개입이 평화구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수사적이고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개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평가는 역설적으로 혼재돼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가. 정치적 개입의 염려와 수용

지금까지 많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 사례에서 정치적 개입은 수사적 결과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정치적 개입은 평화구축 사업이 평화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구축이 단순히 수사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우려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었다.

> *정치집단이 바라던 그런 성과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창이 강원도 혼자가 아니라 평창 프로세스라는 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가 차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
> *(참여자 4)*

이와 관련하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이해관계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먼저, 평화 레거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 레거시 사업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 *그러니까 이 평화 유산이라는 거를 더 가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으로 너무 국한해서 그냥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
> *(참여자 2)*

> *굳이 정치적으로 가지 않았어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간단히 ...(중략)... 남북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계기 자체에 되게 많은 힘을 더 싣고 그게 국제사회에 계속 기억되고 그런 이미지를 던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참여자 1)

위 내용에서 평화 레거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정치적 이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평화 레거시 프로그램 참여자들 역시 정치적 개입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남북단일팀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각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지하는 집단과 지지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평화 레거시의 진행 과정에도 나타났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기획 운영자들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재정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정치적 개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개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다 보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를 꺼리게 될 거고….

(참여자 5)

어떤 주제를 하라는 약간 강압 이런 거는 좀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강원도 평창군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강원도에 필요한 남북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 유라시아철도 연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담기는 했었죠.

(참여자 2)

더 나아가 정치적 개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평화 레거시의 영역에서 관여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인정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느낀 점은 사실 평화는 약간 정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나 주체들도 결국 정치적인 부분이 물론 그렇게 이제 평화라는 건 워낙 범위가 넓으므로 시민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평화의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특히 한반도 평화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유산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이지만 유산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 유산 자체가 한반도 평화라는 정치적 색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4)

나. 정치적 개입의 양가적 의미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한계는 현재 존폐의 갈림길에 서져 있다는 것이다. 평화구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지속적인 평화구축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의미 있는 평화구축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 평화 레거시 산업이 5년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평화포럼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이제 하셔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맥이 끊길 예정이긴 합니다. ...(중략) ... 평화 유산이 기반 평화포럼뿐 아니라 상상 평화 캠프는 사실 좀 작은 사업인데 그것도 올림픽 휴전 센터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평창에서 이런 국제 청년 평화올림픽 시장 교육을 해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중단될 예정이고 그렇죠 ...(중략)... 이게 계

속되어 간다라는 그런 지속성이나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을 것 같기는 하고….

(참여자 4)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는 정치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는 레거시의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한반도 특유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분단국가로서 한반도는 현재 휴전국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의 평화에는 정치적 요소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두 개의 거대 정당은 평화구축에 대한 매우 다른 견해가 있으며, 그 영향은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2022년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편이 진행되었고 앞서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 평화 레거시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평화구축은 특정 정당의 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산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성향에 따라 평화 레거시 성과를 강조하거나 혹은 기존 평화 레거시 산업을 중단하는 측면으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은 올림픽에서 얘기하는 특히 평창에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그런 평화는 스포츠와 올림픽의 궁극의 목적인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유산 사업으로 가져가야 하는 명분이거든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데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잘못 해석이 되거나 할 때에는 사실 평화 유산을 왜 해야 하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물론, 이를 단순히 정치적인 변덕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선거라는 과정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됐던 평창 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강원도민들 그리고 평창 군민에게 크게 와닿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 *국내에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관점에 따라서 좀 다양한 것 같고요 ...(중략)... 양가한 감정을 느끼죠. 결과적으로 이제 평창 주민의 지지를 못 받아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평창 군민들이 새 군수를 채택했다는 거 지금 평창에서 군수가 이거를 가장 큰 레거시로 내세웠는데 결국에는 평창 국민의 대다수가 새 군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평창 군민한테는 어필이 안 됐다라는 거죠.*
>
> *(참여자 1)*

올림픽을 통해 생성된 레거시라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음으로써 해당 올림픽의 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추후 올림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레거시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개최한 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수치상으로 추후 올림픽 개최국이나 도시가 어떠한 경제적 혜택 또는 불이익을 누리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된다.

평화 레거시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평화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평화구축수단으로서의 역량과 추후 올림픽을 개최할 국가 또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올림픽을 통한 평화 구축의 형태가 평화학에서 다루는 평화 구축의 요소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평화학의 영역에서의 기여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나타난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의 형태에서는 이러한 평화 레거시로서의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 모두에서 그

의미를 다룰 수 있다.

>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죠. 평화 레거시 산업 하면서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서울에서 국제를 많이 하는데 강원도 하고 또 평창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벤트 후속 사업으로 유산 사업으로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뭔가 한국형 단순히 올림픽의 레거시가 아니라 저한테 관심은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2024년에 또 있잖아요. 강원 올림픽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고민도 좀 해보게 되고 저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 *(참여자 3)*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운영자들이 더욱 섬세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평화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수사적인 평화로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을 줄일 방안으로 종종 제시된 바 있다. 즉, 개발 단계에서 여러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고, 실행 단계에서 이를 더욱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인터뷰의 내용에서 운영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지 대상자를 정하고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문위원들 이런 평화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활동가분들의 지원도 받고 또 행정 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강원도 평창군 개최도시들과도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강원도와 평창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서 이제 도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은 전문 대행사가 실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자 4)

물론,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성과가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운영자들은 본인 나름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형성 방식이 생겨났고, 아직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자들의 경우 평화 레거시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운영자들은 아쉬운 내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자들이 평화 레거시 산업 운영과정에서 아쉬워했던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평화 레거시를 추후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평화 레거시가 또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청년들이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이 평창평화정신을 한반도 평화에 관심 두는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도 평창군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여기다 투여한단 말이에요. 전국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참여자 2)

운영자들은 또한 평화 레거시 산업이 더욱 확장되어 스포츠와 평화 모두의 영역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러한 평화구축의 과정은 현재 평화학에서 다루는 평화구축 과정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부족한 점도 있다. 평화학에서는 정치적이며 수사적으로 평화를 다루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 *이제 이러한(평화 레거시 관련)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평창올림픽의 평화 유산이 남북 공동 개최나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고 단일팀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된 한국을 보여주고 이거에 사실은 좀 집중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명맥이 사실은 좀 끊기는 부분도 있고 이거에 초점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보여줬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라는 거에 사실은 좀 맞춰서 유산 사업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 *(참여자 4)*

평창올림픽 개최 전후로 남북단일팀과 남북 공동 입장은 국내외로 많은 집중을 받은 레거시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올림픽이라는 장에서 손을 맞잡고 공동 입장을 하는 모습과 단일팀으로서 출전하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인 평화의 메시지였다. 때문에,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당시의 정권은 이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하는 반대 정권은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결국, 국내에서는 여러 논란과 토론의 주제가 되었지만, 단일팀 결성과 공동 입장 그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긋나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평화 레거시 형성 과정에서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보충하고자 했던 점이 고무적이다.

그동안 평화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요소와 수사적인 요소는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 평화라는 가치를 두고 정치적 개입이 발생하게 되고,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평화 산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주로 평화 산업을 위한 자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시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산업 역시 앞서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 대부분을 정부 단체를 통해서 지원받는다. 정부 단체에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들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게 되고,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정치적 개입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자료들에서도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 마찰을 빚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는 그런데도 수사적이지 않은 평화구축 수단들이 발생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평화의 문화'에 기반한 형태의 평화 레거시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해관계자들 역시 이후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영향도 받았으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나타나는 평화구축은 비단 수사적이지는 않다는 의미가 있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이렇듯 국내에서는 정치적 개입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외면이라는 매우 주요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레거시와 평화구축의 측면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보인 것 역시 사실이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평화구축의 사례로서 평화구축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가오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가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가 완벽하진 않으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통해서

다양한 평화를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올림픽 레거시를 통해서도 평화에 대한 담론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것이 영원하진 않으나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제5장 논의

1.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인식

본 연구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인식되었다. 각각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는 같은 레거시 프로그램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특정 레거시 프로그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Boulding(2000, 2001, 2002) 과 Galtung(1985, 2004, 2008,)이 설명한 ‘평화의 문화’와 그 전개 방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Boulding(2000)에 따르면 ‘평화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차이와 갈등을 창의적으로 다루고 경청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많은 교류와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의 문화’가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와 공감을 만드는 것이다. Boulding(2001, 2002)은 이것을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이고, 두 번째는 평화가 타인에 대한 권력을 통해 온다는 패러다임, 즉, ‘전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공공 평화 프로세스를 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평화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은 평화가 진정으로 수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화를 통해 마을마다, 공동체마다, 주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동료 중재, 갈등 해결, 갈등 전환 등 모든 특별한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풀뿌리 단계부터 개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배경으로 현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어떠한 측면에서 '평화의 문화'를 발생시켰고 '전쟁의 문화'에 기울어진 모습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 두 번째, 즉, 평화를 권력을 통해서 불러오고자 하는 모습과 이에 대항하여 공공 평화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의 경우 대부분 평화 레거시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 어떠한 분쟁을 기준으로 어떠한 평화를 논하고 진행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나타난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이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풀뿌리 단계에서 진행되었는지 역시 논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쟁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한반도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주제에서는 한국전쟁의 종식 주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책임 요구와 같이 권력을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다르게 보다 범세계적인 평화를 논함에서는 대부분 '평화의 문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개최된 올림픽이니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한반도를 다루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문화'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며 대응해야 하는지는 Galtung & Fischer(2013)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Galtung & Fischer(2013)는 많은 평화 연구, 특히 휴전과 관련된 평화 연구에서는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전쟁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이 끝나가는 프로세스를 평화의 프로세스라고 해

석하는 것이다. Galtung & Fischer(2013)는 이것이 평화에 대한 좋은 접근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평화 프로세스와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한다.

Galtung & Fischer(2013)가 말한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끝나는지가 현재 한반도와 관련된 평화에서 정치적 개입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특정 정당의 이름을 아로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ltung & Fischer(2013)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 유족의 슬픔, 트라우마, 증오, 복수 등이 이러한 점을 더욱 강조한다고 한다. 결국, 전쟁의 문화로 진행되는 평화는 평화의 형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정치적 개입이 '전쟁의 문화'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되었건 남북정상회담이 되었건 평화와 관련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평화의 문화'와 '전쟁의 문화'가 나타나는 형식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시작지점에서 전쟁의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평화의 문화'가 잘 보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문화'가 줄어들고 '평화의 문화'가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의 문화를 바탕으로 진행된 평화는 실제 평화 프로세스가 되지 못한다는 Boulding(2000, 2001, 2002)의 논의와 결국에는 실질적 평화가 되지 못한다는 Galtung(2008)의 주장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전쟁의 문화에서 시작하여 '평화의 문화'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Galtung(2004)은 결국 인류는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기에 이는 어떤 사회의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평화는 문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 가지 모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만들어진다. (Galtung 2004)는 평화의 공식은 항상 평등, 공평, 상호 존중이며 분쟁의 관계더라도 평화의 요소를 기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평화를 몰아내고 보다 평화로운 문명을 위해 인간 정신의 크나큰 의미에 마음을 열어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한반도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평화 프로세스에 정치적 개입이 발생하더라도 '평화의 문화' 적으로 수용할 방안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문화' 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자리 잡는 것은 아직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도가 '평창 평화정신' 에 집중되어있었음에도 이것이 참여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에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De Rivera(2004)는 '평화의 문화' 가 적용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평화의 문화' 라는 것이 정치적이든 분석적이든, 인간 본성을 생각하면 과연 '평화의 문화' 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UNESCO가 꿈꾸는 '평화의 문화' 는 강자의 약자 지배가 아닌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공동의 위협에 대한 글로벌 연대와 함께 지역적 정체성에 기반한 글로벌 정체성이다. 하지만 타인과 공공에 관한 관심은 종종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과 자기주장에 집중되어있다. Boulding(2000)은 '평화의 문화' 가 행동 패턴과 상호 배려를 촉진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의 필요성이 성공적인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함으로써 평화로운 다양성을 촉진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에서 그러한 문화의 요소가 지배와 폭력을 포함하는 문화의 대조되는 요소와 혼합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같은 사회 내에서 종종 혼동된다는 사실은 복잡한 역학 관계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평화 레거시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형태는 국가, 단체를 넘어 개인의 단위에서까지 각각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평화 레거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평화의 문화'에 기반하여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창으로서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De Rivera(2004)는 인류의 현 상황을 관찰하면서 '평화의 문화'를 확립하는 주요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평화로운 문화가 설계되어야 하는 방식에 한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권력과 지위를 원하고, 권력과 지위의 위계질서가 없는 문화는 실제로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의 문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평화의 문화'의 본질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위계 구조에서 권력과 지위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데 기반을 두도록 사회를 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주어진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평화의 문화'를 기반으로 평화적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바뀌는 형태는 '평화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에 분명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2.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함의

1) 평화 레거시로서 함의

본 연구에서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장기적으로 진행된 레거시로서 평화 레거시의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시한다. 올림픽 레거시는 그 레거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Preuss, 2005). Tomlinson(2014)은 올림픽 레거시가 올림픽 개최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이해단체가 과장된 도구로써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는 올림픽 레거시는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상황 그리고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림픽 레거시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일 수도 있다. Tomlinson(2014)이 제시한 것처럼, 특정한 요소에 투자를 한 올림픽 레거시는 다른 분야에서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어졌다.

평화 레거시와 같은 무형의 레거시는 당연히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결과물이 부족하므로, 레거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의 부족은 학문의 영역에서 평화 레거시에 관련하여 더욱 이론적 접근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Spaaij(2012)의 경우 올림픽을 통한 평화구축이 지역별로 실행되는 방식을 제시한 연구에서 올림픽이 평화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할이 철학과 역사적 토대의 마련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올림픽이 평화 그 자체를 불러오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세계적 공감이나 철학적 바탕을 제시하는 장으로서 해석한 것이다. 비슷하게 올림

픽이 평화를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된다고 제시한 Briggs et al.(2004)은 그들의 연구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제시한다. 하지만, 해당 올림픽에서 진행된 평화 레거시는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기회의 창’으로서 역할을 더 해낸 것일 수 있으나, 보다 장기적이고 결과를 알 수 있는 평화 레거시의 존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탕에서,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공공외교로서의 주요 사례로서 무형의 레거시인 평화를 핵심으로 레거시를 장기적으로 이어갔으며, 평창평화포럼과 같은 대표적인 결과물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물은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어떠한 한계점을 지녔으며 그 한계점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해관계 단체의 조화로운 협력과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스포츠’보다는 ‘평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단체에서 심층 면담을 받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평화 레거시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심층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충하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더욱 확보하고 이를 통해 추후 평화 레거시를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Griffiths & Armour(2013)가 제시한 것처럼 올림픽 유산에 대한 기대는 보다 현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체화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면, 장기적인 평화 레거시의 자료로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가지는 함의는 중요 할 것이다. 하지만 Dickson et al.(2011)의 논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미래의 올림픽 개

최를 위한 근거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평화구축 수단으로서의 함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평화구축의 수단으로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두 가지의 매우 핵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개입의 존재이며 두 번째는 운영자와 참여자의 간극이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에서 정치적 개입은 오랫동안 경계의 대상이었다. 우선 스포츠를 평화의 도구로써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스포츠의 가치중립성이기 때문에(Olympic Charter, 2020), 스포츠의 영역에서 정치의 개입은 금기시되어왔다. 더 나아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확인되며(Tomlinson, 2017), 스포츠를 통한 평화 자체가 수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화 프로세스가 정치와 아무 관계 없이 진행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Chandler, 2006). 특히, 국가의 주요 사업이나 외교 관계와 관련이 있는 평화구축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역시 한반도의 평화라는 중요한 외교 상황과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합쳐진 경우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정치적 개입은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이 평화구축보다 중요시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나타난 평화구축의 모습에서 기존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수사적 결과물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유의미한 평화구축의 모습들이 확인되었다. 우선, Chandler(2005)가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와 정치는 완전히 구분된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평화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

으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개입은 아마 불가분한 영역일 것이다. 이때,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의 영역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적 개입이 평화구축의 과정에서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뒤에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 그리고 평화 레거시의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드러나는 지점이 주로 '전쟁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분명 정치적 개입이 주요한 한계점이다. 그러나, 평화 레거시와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와 통합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줄어들고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점은 정치적 개입이 비단 수사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평화 레거시가 평화구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수사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내용은 주로 스포츠를 통한 완벽한 평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Spaaij, 2012). Kay(2012)는 스포츠를 직접적인 평화구축의 도구로 사용하는 야심 찬 아이디어는 '거시적 수준에서 대부분 실패와 저항에 부딪힌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스포츠는 더 간접적인 형태로 평화구축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올림픽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는 평화의 도구의 역할은 올림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보인 것 역시 사실이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많은 직, 간접적인 참여자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나, 각 참여자가 받아들인 평화의 의미가 일정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자가 목표로 한 '평창평화정신'의 전파를 통한 평화구축이 참

여자들에게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Boulding, 2000) 참여자들은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평화 레거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영자와 참여자의 간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평화올림픽이라는 구호를 두고 진행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어떠한 평화 레거시가 인식되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그 함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화 레거시의 인식을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 패러다임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에서 나타난 평화 레거시가 어떠한 함의를 가졌는지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쟁의 문화'와 '평화의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쟁의 문화'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는 경우와 특정 상황에서 가시화되는 레거시에서 주로 나타났다. '평화의 문화'는 '평창평화정신'에 기반하여 평화 레거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통해 전파된 평화 레거시에서도 '평화의 문화'가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를 통하여 '평화의 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한계점이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 레거시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주요 사례로서 함의를 가진다. 평창올림픽 이전에 진행된 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대부분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평화 레거시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이는 평화 레거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는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와 레거시 운영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평화 레거시를 구현시킬 수 있었다. 평창올림픽에서 구현된 평화 레거시는 올림픽 평화 레거시가 평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한계점 그리고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레거시는 평화 레거시의 의미가 역설적으로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평화 레거시의 한계와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서 정치적 개입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기획 및 운영자들에게서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으나, 그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수용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렇게 평화 레거시에서 정치적 개입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한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모습이나, 정치적 개입과 별개로 평화 레거시의 역할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함의를 탐구한 연구로써 올림픽 평화 레거시 형성의 경험적 증거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림픽의 경제적 이득이 지속해서 의심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올림픽의 무형 레거시의 중요성은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 레거시 중 가장 중요시되고 오래된 평화 레거시는 현대에 들어서며 실증적 자료의 부족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진행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구축과 형성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함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한계를 맞이하였다.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운영자와 참여자들에 한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와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사업이 더는 진행되기 힘들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해당 연구에서는 평창올림픽이 개최된 강원도와 평창군의 올림픽 유산 관련 주무 부처 관계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 레거시의 형성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추후 연구에서 이들의 운영자로서 역할과 그 영향을 추가할 수 있다면 보다 이상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평화구축의 과정에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직접적으로 관여한 운영자와 참여자만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칫 평창올림픽 평화구축의 과정을 긍정적인 태도에서만 살펴보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강원도민이나 평창 군민등 간접적으로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진행된 대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 사업이 종료되었다. 물론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평화 레거시 사업들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지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향후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한 한계점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본 연구에서 다룬 평창올림픽 평화 레거시의 형태와 함의를 토대로 각각 다른 사회, 집단, 공동체들 사이에서 ‘평화’라는 이데올로

기가 어떠한 담론과 이미지 또는 개념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평화 레거시'라는 올림픽 레거시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현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특정 대상들 간의 평화라는 실존 조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평화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김재학, 김성조 (2020).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산 및 이슈에 기반한 지역관광의 방향: 포스트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학회, 34**(5), 19-33.

박진경 (2014).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올림픽레거시와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3**(1), 357-372.

박해남 (2019). 서울올림픽과 도시개조의 유산: 인정경관과 낙인경관의 탄생. **문화와 사회, 27**(2), 455-499.

박성준 (2021.09.10.). 평창올림픽 유산 활용 "새로운 도약". **G1방송.** http://www.g1tv.co.kr/news/?mid=1_207_4&newsid=252905.

송석록 (2017).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위한 동계패럴림픽 유산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4), 133-142.

인상우 (2011). 시리즈 효과: 스포츠이벤트 레거시의 형성과정. **한국체육학회지, 50**(1), 123-137.

평창군 (2021).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https://www.pc.go.kr/mayor/intro/peaceCity/start.

Bennet, J. (2018, February 13). Is North Korea causing trouble or giving peace a chanc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2/13/opinion/olympics-north-korea-sister.html.

Black, D., & Bezanson, S. (2004). The Olympic Games, human rights and democratisation: Lessons from Seoul and implications for Beijing. *Third World Quarterly, 25*(7), 1245-1261.

Briggs, R., McCarthy, H., & Zorbas, A. (2004). *16 days: The Role of The Olympic Truce in the Toolkit for Peace*. London: Demos.

Brittain, I. (2012). The Paralympic Games: from a rehabilitation exercise to elite sport (and back agai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y and Rehabilitation, 19*(9), 526-530.

Bryman, A. (2006). Paradigm peace and the implications for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9*(2), 111-126.

Boulding, E. (2000). *Cultures of Peace: The hidden side of history*. Syracuse University Press.

_____. (2001). Building a culture of peace: Some priorities. *NWSA Journal, 13*(2), 55-59.

_____. (2002). Peace culture. *Toward a Compassionate Society*, 8-15.

Bob, U., Swart, K., & Cornelissen, S. (2008). When will it be Africa's turn?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outh Africa hosting the Olympic Games. *Africa Insight, 38*(3), 49-60.

Bob, U., & Swart, K. (2010). Sport events and social legacies. *Alternation*

Burleson, C. (2012). The ancient Olympic Truce in modern-day peacekeeping: revisiting Ekecheiria. *Sport in Society, 15*(6), 798-813.

Cashman, R. I. (2006). *The Bitter-sweet Awakening: The Legacy of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Sydney: Walla Walla Press.

Chalip, L. (2006). Towards social leverage of sport events. *Journal of Sport & Tourism, 11*(2), 109-127.

Chandler, D. (2005). Introduction: Peace without politics?. *International Peacekeeping, 12*(3), 307-321.

Creswell, J. W.(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Sage Publication.

De Rivera, J. (2004). Assessing the basis for a culture of peace in contemporary societ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1*(5), 531-548.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Dickson, T. J., Benson, A. M., & Blackman, D. A. (2011). Developing a framework for evaluating Olympic and Paralympic legacies. *Journal of Sport & Tourism, 16*(4), 285-302.

Galtung, J. (1965). Institutionalized conflict resolution: A theoretical paradig m. *Journal of Peace Research, 2*(4), 348-397.

_____. (1985). Twenty-five years of peace research: Ten challenges a nd some responses. *Journal of Peace Research, 22*(2), 141-158.

_____. (1996). Peace and conflict research in the age of the cholera: ten pointers to the future of peac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 eace Studies, 1*(1), 25-36.

_____. (2004). Violence, war, and their impact. On visible and invisible effects of violence. *Polylog*, 5.

_____. (2008). Form and content of peace education. *Encyclopedia of Peace Education*, 49-58.

_____. (2010). Peace studies and conflict resolution: The need for tran sdisciplinarity. *Transcultural Psychiatry, 47*(1), 20-32.

Galtung, J., & Fischer, D. (2013). What is a Culture of Peace and What a re the Obstacles?. In Galtung, J., & Fischer, D. (eds.), *Pioneer of Pea ce Research* (pp. 151-155). Springer.

George, N. (2020). The Price of Peace? Frictional Encounters on Gender, Security and the 'Economic Peace Paradigm'. In Basu, S., Kirby, P., & Shepherd. (eds.), *New Directions in Women, Peace and Security* (p p. 41-60). Bristol University Press.

Gerring, J. (2004). What is a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 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41-354.

Gratton, C., & Preuss, H. (2008). Maximizing Olympic impacts by building up l egac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4), 1922-1938.

Gratton, C., Preuss, H., & Liu, D. (2015). Economic legacy to cities from h osting mega sports events: A case study of Beijing 2008. In Holt, R., & Ruta, D. (eds.), *Routledge Handbook Of Sport And Legacy: Meeting the Challege of Major Sports Events* (pp. 46-58). Routledge.

Griffiths, M., & Armour, K. (2013).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 in England: Conceptu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an Olympic leg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5*(2), 213-227.

Hiller, H. H. (2006). Post-event outcomes and the post-modern turn: The Olympics and urban transformations.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6*(4), 317-332.

Hoberman, J. (2011). The myth of sport as a peace-promoting political force. *The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1*(1), 17-29.

Homma, K., & Masumoto, N. (2013). A theoretical approach for the Olympic legacy study focusing on sustainable sport legac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0*(12), 1455-1471.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1, August 23). Olympic Movement. https://olympics.com/ioc/olympic-movement.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17). *Legacy Strategic Approach: Moving Forward*. https://stillmed.olympics.com/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Documents/Olympic-Legacy/IOC_Legacy_Strategy_Full_version.pdf.

Kay, T. (2012). Accounting for legacy: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sport in development relationships. *Sport in Society, 15*(6), 888-904.

Kyrou, C. N. (2007). Peace ecology: An emerging paradigm in peac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73-92.

Lamond, I. R., & Platt, L. (2016). *Critical Event Studies: Approaches to Research*. Palgrave Macmillan London.

Lee, J. W., Abrahamian, A., Town, J., & Lee, S. Y. (2018, February 9). Olympic politics: North Korea's media charm offensive.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programmes/listeningpost/2018/02/olympic-politics-north-korea-media-charm-offensive-180217153613549.html.

Lee, W. (2017). Pyeongchang Olympics Has to Be 'Peace Olympics'. *Ko*

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4.

Leopkey, B., & Parent, M. M. (2017). The governance of Olympic legacy: Process, actors and mechanisms. *Leisure Studies, 36*(3), 438-451.

Li, S., & McCabe, S. (2013). Measuring the socio-economic legacies of meg a-events: Concepts, propositions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5*(4), 388-40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Loland, S., & Selliaas, A. (2009). The Olympic Truce-the Ideal and the Re ality. In Georgiadis, K., & Syrigos, A. (eds.), *Olympic Truce: Sport as a Platform for Peace* (pp. 57-70). International Olympic Truce Centre.

Mangan, J. A., & Ok, G. (2010). Beijing 2008: Symbolic Hegemonic Assertio n? South Korean Media Reactions and Responses to the Chinese Olym p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14-15), 2440 -2466.

Martínková, I. (2012). Fair or temple: Two possibilities for Olympic sport. *S port, Ethics and Philosophy, 6*(2), 166-182.

Miller, B. J. (2018, February 12). Olympic diplomacy cannot solve the Kore a crisis.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18/2/12/olympi cs-diplomacy-cannot-solve-the-korea-crisis.

Misener, L., & Mason, D. S. (2006). Creating community networks: Can spo rting events offer meaningful sources of social capital?. *Managing Leis ure, 11*(1), 39-56.

Montifield, C., & Sharpe, S. (2020). Are the Olympic Games an opportunity or a myth? The case of PyeongChang 2018 and What May Prove to Be a Paradoxical Notion. *Journal of Global Sport Management*, 1-22.

Mun, K., Choi, M., & Gill, H. (2021). PyeongChang, Pyongyang, or Pyeongh wa (peace in Korean) olympic games? An exploration of partisan medi a and framing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4.

Orr, M., & Jarvis, N. (2018). Blinded by gold: Toronto sports community ig nores negative legacies of 2015 Pan Am Games. *Event Management, 22*(3), 367-378.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0, June 3). Olympic Charter. htt ps://olympics.com/ioc/olympic-charter.

Parry, J. (2007). The religio athletae, Olympism and peace. In Parry, J., N esti, M., Robinson, S., & Watson, N. (eds.), *Sport and Spirituality: An I ntroduction* (pp. 201-214). Routledge.

Patton, M. Q. (2002). Two decades of developments in qualitative inquiry: A personal, experiential perspective. *Qualitative Social Work, 1*(3), 261 -283.

Preuss, H. (2007). The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of mega sport e vent legacies. *Journal of Sport & Tourism, 12*(3-4), 207-228.

_____. (2014). 'Legacy' revisited. In Grix, J. (ed.), *Leveraging Legacie s from Sports Mega-Events: Concepts and Cases* (pp. 24-38). Palgrave Pivot London.

_____. (2015). A framework for identifying the legacies of a mega spor t event. *Leisure Studies, 34*(6), 643-664.

_____. (2019). Event legacy framework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11*(1), 103-118.

Reid, H. L. (2006). Olympic sport and its lessons for peace.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33*(2), 205-214.

Sharp, D. N. (2011). Addressing economic violence in times of transition: t owards a positive-peace paradigm for transitional justice. *Fordham Int ernational Law Journal, 35*, 780-813.

Smith, A. (2014). "De-risking" East London: olympic regeneration plannin g 2000-2012. *European Planning Studies, 22*(9), 1919-1939.

Spaaij, R. (2012). Olympic rings of peace? The Olympic movement, peacem

aking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Sport in Society, 15*(6), 761-774.

Syed, M. (2018, February 16). Don' t fall for North Korea' s snow job at the Olympics. *New York Post*. https://nypost.com/2018/02/15/dont-fall-for-north-koreas-snow-job-at-the-olympics/.

Synott, J. (2005). Peace education as an educational paradigm: Review of a changing field using an old measure. *Journal of Peace Education, 2*(1), 3-16.

Thomson, A., Cuskelly, G., Toohey, K., Kennelly, M., Burton, P., & Fredline, L. (2019). Sport event legacy: A systematic quantitative review of literature. *Sport Management Review, 22*(3), 295-321.

Tomlinson, A. (2014). Olympic legacies: recurrent rhetoric and harsh realities. *Contemporary Social Science, 9*(2), 137-158.

Yesufu, A. (2006). A Peace Paradigm in Social Work. *Socialist Studies*. 79-104.

Van Tassell, D. H., & Terry, D. A. (2012). An overlooked path to peace and stability: sport, the state and the case of the Koreas. *Sport in Society, 15*(6), 814-822.

Van Wynsberghe, R., & Pentifallo, C. (2014). Insights and Investigations of the Social Legacies in the 2010 Winter Olympic Games: The Olympic Games Impact (OGI) Study. In Young, K. A., & Okada, C. (eds.), *Sport, Social Development and Peace* (pp. 245-275).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Weed, M. (2013). London 2012 legacy strategy: Did it deliver?. In Girginov, V. (ed.), *Handbook of the London 2012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pp. 301-314). Routledge.

Woodhouse, T. (2019). SDP and peace 1. In Collison, H., Darnell, S. C., Giullianoti, R., & Howe, D. (eds.), *Routledge Handbook of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 (pp. 265-274). Routledge.

ABSTRACT

How Is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Peace Legacy Understood?

Kim, Donghyu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lympic peace legacy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Olympic legacy. However, the rhetoric that peace legacy holds caused constant questions of its effectiveness which leads to the demand of practical data of Olympic peace legacy.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peace legacy is understood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it holds.

As a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Scholarly journals, official documents from related organization and media data were researched for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ccording to preceding studies. The study participant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re members of Pyeongchang 2018

Legacy Foundation, KOICA(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peace legacy participants. The data collected was categorized in order to analyze its logical relationships.

Through this process, Pyeongchang Olympic peace legacy appears to understood through both ‘culture of war’ and ‘culture of peace’ paradigm. Also, the peace legacy of Pyeongchang Olympic, that was invested for long term, shows practical consequences as imperical case. Furthermore, the meaning of peace legacy could be seen as paradoxical complexity.

keywords : Pyeongchang Olympic, Peace Building, Peace Legacy, Culture of War, Cultrue of Peace
Student Number : 2020-21335

연구 동의서 (연구참여자)

연구 과제명 : 평창올림픽 레거시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김동형(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